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방부



3대(代)가 멸족하려면 국무의원 또는 국무총리가 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소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등의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 후보자의 모든 것이 들추 어지고 해부 되다 보니 결국 그동안 감추 어져 있던 치부가 노출되어 개인이 쫓겨 지고 난도질당할 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이다. 이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에 대한 청문회 법이 시작되었고, 2003년에는 4대 권력 기관장이, 2005년에는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청문회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뿐이 아니다. 대통령직이 끝난 사람이거나 또는 무슨 의혹사건이 있으면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의 대상은 항상 대상이 될 만한 것도 아닌 경우가 있었고 또 청문회를 통하여 솜곳 같고, 속 시원한 청문을 한 국회 의원이 스타가 되기도 해서 소위 '청문회 스타'라는 용어도 생겼다.

3대(代)가 멸족하려면 국무의원 또는 국무총리가 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소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등의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 후보자의 모든 것이 들추 어지고 해부 되다 보니 결국 그동안 감추 어져 있던 치부가 노출되어 개인이 쫓겨 지고 난도질당할 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3대(代)가 멸족하려면 국무의원 또는 국무총리가 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소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등의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 후보자의 모든 것이 들추 어지고 해부 되다 보니 결국 그동안 감추 어져 있던 치부가 노출되어 개인이 쫓겨 지고 난도질당할 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도 사람이 없소

어서 고속도로(Free way)에서 차를 멈춘 후 뒷 자석의 두 유학생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문을 잠그고 출발하며 "너희 놈들 구보!" 하고 떠나왔다고 하며 특유의 너털웃음으로 웃었다.

이스라엘은 국민이면 누구나 군대에 간다고 한다. 남녀의 구별도 없다. 그리고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그 이외의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군복무를 안 했으면 이유 불문하고, 공직(公職)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개인적인 사업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공직은 안 된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국민의 3대 기본 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전혀 공직을 맡는 것과는 상관없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든지?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유를 대고 병역을 하고 사과를 해도 군대를 안 간 것은 사실이 아닌가?

어서 고속도로(Free way)에서 차를 멈춘 후 뒷 자석의 두 유학생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문을 잠그고 출발하며 "너희 놈들 구보!" 하고 떠나왔다고 하며 특유의 너털웃음으로 웃었다.

이스라엘은 국민이면 누구나 군대에 간다고 한다. 남녀의 구별도 없다. 그리고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그 이외의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군복무를 안 했으면 이유 불문하고, 공직(公職)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개인적인 사업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공직은 안 된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국민의 3대 기본 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전혀 공직을 맡는 것과는 상관없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든지?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유를 대고 병역을 하고 사과를 해도 군대를 안 간 것은 사실이 아닌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뺨 문화전당’ 갈등 접고 조기완공 힘 모아야

옛 전남도청 별관 논란으로 1년여 동안 차질을 빚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22일 10인 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5월의 문'(별관 1, 2층 일부를 뺀) 문을 만드는 것' 대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도청별관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접고 조기 완공에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당초 201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랜트마크 등으로 8월 현재 10%대의 공정률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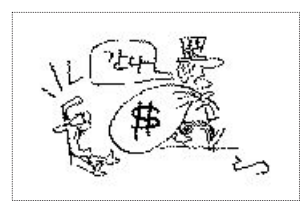
금리인상 대비 서두를 때다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CD 금리에 연동돼 있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無等鼓

‘캐리 트레이딩’(carry trading)이 회자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 등은 이들 달러 캐리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결과다.

반감장은 달러



반감장은 달러. 반감장은 달러. 반감장은 달러. 반감장은 달러.

기고

정희석



전 세계가 녹색 경정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린, 예코, 친환경 등의 수식어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화학물질 오염 등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가 정부를 물론 기업경영의 패러다임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가 녹색 경정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린, 예코, 친환경 등의 수식어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화학물질 오염 등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가 정부를 물론 기업경영의 패러다임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기고

박득서



추석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고는 벌초 과정에서 예취기 사용법의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벌과 뱀에 의한 피해, 가을철 전염병인 유행성 출혈열 등이다.

추석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고는 벌초 과정에서 예취기 사용법의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벌과 뱀에 의한 피해, 가을철 전염병인 유행성 출혈열 등이다.

성묘·벌초시 안전사고 예방법

초를 하거나 논밭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예취기의 사용이 미숙한 도시인이 모처럼 사용하다가 돌이 튀거나 칼날에 의한 다리 등을 다치는 사고로, 사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형 삼촌제를 미리 준비하면 이들은 되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벌에 쏘인 경우에는 벌침을 손가락으로 빼내지 말고 신용카드와 같은 얇은 재료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더 안전하며 벌에 많이 쏘인 경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녹색경쟁과 기업의 대응

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너스-말러스' 제도를 도입했다. 또 많은 나라에서 제품의 원료확보에서 생산·유통·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탄소발자국' 제도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너스-말러스' 제도를 도입했다. 또 많은 나라에서 제품의 원료확보에서 생산·유통·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탄소발자국' 제도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사랑 나누며 사는 사회’ 기부문화 정착됐으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아직도 기부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못해 아쉬움을 준다. 영국에 갔을 때의 일이다. 영국은 중소도 시마다 채리티 숍(중고품 자선상점)이 즐비하다. Oxfam(옥스팜), Cancer research UK(영국 암재단), Help the Aged, FARA charity shop등과 같은 뜻 모를 간판들이 바로 채리티 숍들이다.

문화사업, 교육사업 등에 쓰인다고 한다. 서민뿐만 아니라 상류층도 이 가게를 애용하는데 물건을 가져 온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기부자인 셈이다. 정부도 채리티 숍에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은행들 ‘부유층 위주 마케팅’에 박탈감 느껴

얼마전 모 은행이 VIP 고객을 은행에 소개해주는 고객에게 골프채나 호텔 숙박권을 주겠다는 것을 보았다. 앞뜰살뜰 돈 모으는 서민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수수료만 비싸게 떼가면서 부유층들에게는 우량고객이라며 특별 대접하는 게 불쾌했다.

얼마전 모 은행이 VIP 고객을 은행에 소개해주는 고객에게 골프채나 호텔 숙박권을 주겠다는 것을 보았다. 앞뜰살뜰 돈 모으는 서민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수수료만 비싸게 떼가면서 부유층들에게는 우량고객이라며 특별 대접하는 게 불쾌했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		팩스 222-4918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